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우유의 재발견(THE NEW GOOD OF MILK)

“소비자의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우유는 과거와 같이 현재도 여전히 중요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테트라팩(TETRA PAK)이 후원한 국제적인 연구조사보고에 의하면, 잇따른 안티우유 관련 기사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서 소비자의 우유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소비자는 최근 우유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식품으로서 우유가 지니는 장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른바 ‘유제품에 대한 일종의 신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가 무얼 먹느냐, 또는 무얼 먹지 않느냐 하는 등’의 음식을 둘러싼 식문

화와 일시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식품으로서 우유의 우수성에 관해서만은 소비자의 신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결과가 우유는 다른 어떤 식품으로도 대체가 어려운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매년 수많은 새로운 연구결과가 우유가 인류의 건강과 영양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 또한 바쁜 현대생활에 있어서 우유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즉, 현대인의 상당수가 점차 아침식사를 거를 만큼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선진국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액상식품으로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우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있어서의 유제품에 대한 인기 또한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인 우유수요가 증가일로에 있다. 유명브랜드의 유업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유제품을 먹는 식습관조차 없던 나라에서까지 소비자기호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날로 번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개도국시장에 있어서의 혁신은 실로 놀라운 것으로, 유제품에 대한 인기가 이미 식여버린 선진국시장에 있어서도 우유에 대한 인기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유소비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선진국시장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업체들은 우유의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 우유에 새로운 성분을 혼합하고, 새롭게 포장을 하며, 제품에 새 이름표를 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유업체들은 우유소비침체가 우유가 지니는 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시판되는 유제품이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충분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들 유업체는 그 같은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경우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외에 연구보고서 생산혁신과 관련한 부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그 같

은 혁신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또한 이 같은 신선한 시도를 추구함에 있어서 마케팅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현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우유는 긍정적이고, 엄격한 연구를 거쳤으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훌륭한 이야기 거리를 지니고 있는 식품으로, 우유에 대한 여론주도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유와 관련된 그 같은 이야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들은 모든 시장에 있어서 유제품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유는 편리하고, 즐거운 식품이며, 특별한 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으로서,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알려 소비자가 우유에 대해 열광토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우유가 지니는 '새로운 재화'로서 우유의 가치의 핵심이다. 그런 만큼 우유는 유일하게 다양성을 지닌 식품이고, 편리하며,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액상식품임을 홍보함과 아울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처 : DENNIS JONSSON, PRESIDENT AND CEO, TETRA PAK
TETRA PAK DAIRY INDEX
AN ANNUAL NEWS AND INFORMATION SOURCE
ABOUT THE DAIRY INDUSTRY

ISSUE 8 / JUNE 2015
REVITALISING DAIRY
THE NEW GOOD OF MILK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세계유제품 수급상황과 영국 유제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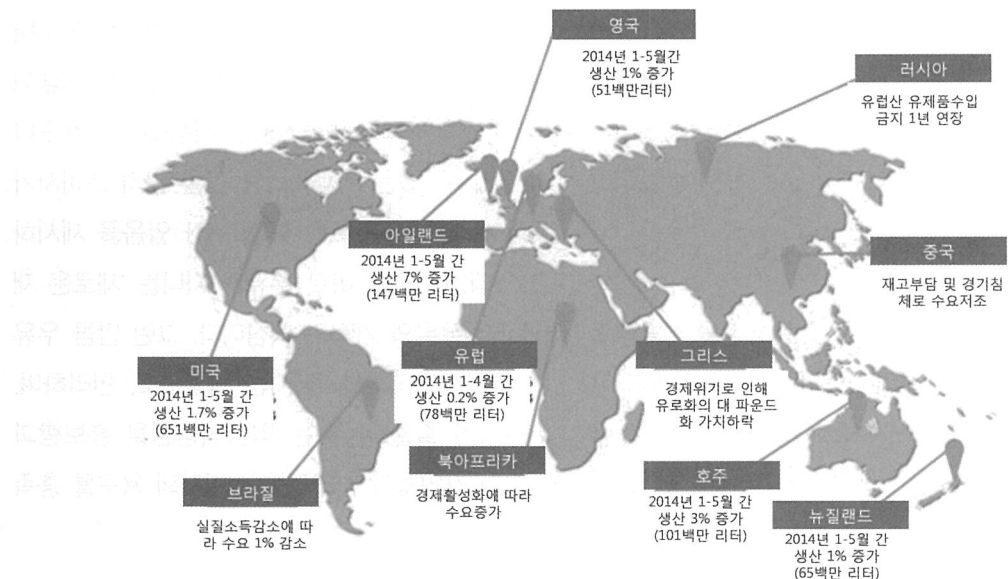
최근 영국의 유제품시장 상황은 단순히 영국 내의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유제품시장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다. 즉, 주요 유제품 수출국에 있어서의 생산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이 국제시장의 유제품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수요감소가 국제시장 수요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영국산 유

제품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EU의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영국산 유제품의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 유제품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Dairy Market Weekly(2015. 7.23, Issue 64)
번역 및 요약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유제품에 대한 유리한 TPP 협상결과를

5월

미국 낙농가연합(NMPF)과 유제품수출협회(USDEC)는 22명으로 구성된 상원의 초당파 의원 그룹이 TPP 협상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캐나다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 시장접근확대를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즉, 미 상원의 Dianne Feinstein(캘리포니아주) 및 Mike Crapo(아이다호주) 두 의원은 TPP 협상대표 Michael Froman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 특히 캐나다와 일본에 대한 모든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접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꼭 있어야 함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두 나라에 대한 미국산 유제품무역의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들 두 시장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상대에 비해 불리한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레곤주 출신의 유력 상원의원인 Ron Wyden을 포함하여 미 상원 재정위원회의 3분의 1에 달하는 의원들이 금번 오바마 행정부에 보내는 서한에 초당파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MPF 회장 겸 CEO인 Jim Mulhern씨는 “금번 TPP 협상결과에 있어서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접

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미국의 유제품시장에 있어서 뉴질랜드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접근 허용이 캐나다와 일본에 대한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접근 허용 폭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SDEC 회장 Tom Suber 또한 “그동안 미 낙농업계는 TPP 협상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캐나다와 일본시장에 대해 괄목할 만한 시장접근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하였다. 그 같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인 협상의 막바지를 맞아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접근목표를 견지하여 미국 낙농업계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언급한 미 상원 초당파 모임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서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15년 8월까지 타결이 예상되는 TPP 협상에 있어서 낙농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타결이 예상되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이다. ㉞

출처 :

<http://www.usdec.org/newsroom/news-releases/news-releases/news-release-07/26/2015>

번역 및 요약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